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교회교육주일 (릴레이기도사작)

2025년 7월 13일(주일)은 교회교육주일로 지킵니다.

3. 청소년한신예배 / 중고등부·청년부 특송

2025년 7월 20일(다음 주일)은 청소년 한신의 주일로 지킵니다.

4. 구역예배

2025년 7월 17일(목) 오후 2시 박제연 집사님 댁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오후 1:20 출발
(다음 모임 : 이가를 관찰 가정)

5. 주일 오후 소그룹 교제

오늘 오후예배 소그룹 교제는 <토티ن 비유로 배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도는 중고등부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6.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이다남(노환), 박영대(노환), 임명순(발목 허리 인대 회복), 김혜숙 권사(디스크 협착증), 정현숙 권사(수면), 김옥화 집사(평안, 가족), 김강준 어린이(치유와 회복, 심리적 안정), 김주형(사업), 한효성(직장) 한인혜(직장) 정청재(공항장애, 믿음), 박제연(치유, 홈스쿨), 박태성(청력), 강선주(사업, 가족, 8월국내단기선교) 최귀순(백내장 수술 회복, 관절) 김민철 목사(유명한교회, 폐암) 임진관(중앙효요양병원-회복), 이상민(평안) 손준경(평안) 장사리(전도-이옥성, 장세규, 장세경, 최란희, 장연우, 장지우, 장은비)

8. 2025년 7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6.8 ~ 윤 -6.7)

07/07(월)-이판순 성도(-6.13) 07/14(월)-박창균 성도 07/19(토)-박제연 집사
07/19(토)-문효은 자매 07/21(월)-노강민 학생 07/23(수)-문동진 권사(-6.29)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7/13	정현숙 권사
7/20	한희락 학생
7/27	박제연 집사
8/03	임명자 집사
8/10	임명숙 집사
8/17	김혜숙 권사
8/24	정현숙 권사

교육과 수련의 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7/13	교회교육주일 / 릴레이기도사작
07/20	청소년한신예배(청소년부)
07/27	교회학교 교사 한신예배
28~30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드림캠프) 팽택 더인타호텔
28~30	중고등부 수련회 (성령캠프) 신길교회
08/01	첫날맞이 일식예배(성찬예식)
08/03	청소년 청년 한신의 주일
08/10	해방기념주일
08/14	교사 수련회(여름사역 평가 한신)
08/17	어름사역보고(교육기관, 홈스쿨)
08/24	학원선교 파송의 주일
08/31	선교한신예배(모로코)

주일 사랑 운동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당 후 진행)		



주사랑 8권 28호 | 2025년 7월 13일
창립 2017.11.25 | 생령침후다섯째주일/교회교육주일
기독교 대한성령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교회교육주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마가복음 12:29~31)



이름 :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교회교육주일) 인도:집례자

※ 목 도 신명기 6:4~5 인 도 자

※ 찬 송 가 찬 484장 다 같 이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112 교회교육주일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516장 다 같 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대 표 기 도 정현숙 권사
(여전도회장/중보기도)

※ 성경 봉독 마태복음 22:34~40 (신 38) 정현숙 권사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담 임 목사

십 계 명 출 20:1~17 / 마 22:37~40 인도자/회중

봉헌찬송 찬 563장 다 같 이
(헌금위원 : 한은총 어린이)

※ 축 도 담 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언금함에 미리 넣어주세요 / 기탁일: 2025.07.12.)

십 일 조 : 이광근 박제원 정현숙 한성결 한은총 임명순 한희락 / 손영수 이선희

주정현금 : 강선주 문재효 박제원 이광근 임명숙 임명순 임명자 한승훈 무명

감사헌금 : 고도열 박태성 이광근 박제원(자녀) 전복순 한승훈 임명순 / 오현진

월삭감사 : 이광근 박제원 한성결 한승훈 임명순 한은총 한희락

일천번제 : 강선주

맥추감사 : 강선주 고도열 김옥화 문재효 이광근 박제원 임명자 장사라 한성결
한은총 한승훈 임명순 한창수 오경자 한희락 / 오동영 임명숙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구역헌금 : 박제원 임명순

선교헌금 : 문동진 임명자 이광근 박제원 한승훈 임명순

건축헌금 : 이광근 박제원 한승훈 임명순

차량헌금 : 나승원 정영미

후원헌금 : 오복상 방애경 무명(하나은행)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주일 기관별 소그룹

오후 1:00 임명순 목사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누가복음 1:41~42 (신 88)

말씀제목 찬송을 넘어 기쁨으로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디모데후서 1:5~14 (신 343)

말씀제목 자녀를 제자로 가정을 교회로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박제원 집사

성경봉독 열왕기하 5:1~14 (구 568)

대표기도 정현숙 권사

말씀제목 자기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 (5)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열왕기상 2:1~9 (구 511)

말씀제목 자녀를 제자로 나라를 교회로

새벽 기도회

새벽5:30 로마서강해(월~금)

13일(일) 신 6:1-9 주님의 하심을 사랑하라

14일(월) 롬 15:14-21 복음의 재장 직분

15일(화) 롬 15:22-33 육적인 것의 도움도 필요

16일(수) 롬 16:1-16 복음으로 세입된 동역자들

17일(목) 롬 16:17-20 선한 것에 재촉하라

18일(금) 롬 16:21-27 서로 문안을 통해 찬양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기타 기관 선교

오펜도어즈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원

모통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우교육마을

국내선교(오주교포함소)

이재우-제하-제하

홍수영

상청가정

복음적 다문화대

해외선교(모로코)

함께로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김미리 파송

소리 단이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교단총회 협조부서

북한선교장학사업

북한성결교회재건

북한아동청소년지원

통일선교학교

⑥ 호세아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앞에서 어떤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나요? (호 6:1~3)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

그러므로 ()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라

⑦ 호세아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의 회개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삶의 변화라고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요? (호 6:6)

나는 ()를 원하고 ()를 원하지 아니하며 ()보다 ()을 원하노라

⑧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속에서 잃어버린 영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호 7:7)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가 하나도 없도다

⑨ 하나님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책망하셨나요? (호 7:16)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⑩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행한 것을 책망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호 8:11~14)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을 많이 만들더니 그 ()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고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를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사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게 되고, 멸망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호 4:1~2)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도 없고 ()도 없고 ()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②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나요?(호 4:6~8)

내 백성이 ()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을 잊었으니 나도 네 ()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에 두는도다

③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음행하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북이스라엘에 비유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범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호 4:17~19)

에브라임이 ()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쫓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④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는 범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되었나요? (호 5:4~5)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이라 이스라엘의 ()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⑤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였던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분열이라는 상처를 안겨주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떤 소망의 약속을 주셨나요? (호 5:15)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나 (미가 6:8)

하나님 나라는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관계 맺음’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입니다. 바른 관계로서의 정의를 가르치는 교본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정의는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목숨’, ‘뜻’은 인간의 전인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인격적 감정과 힘과 성품과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의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 한다’고 말씀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 정의에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인 둘째 계명도 첫째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무게를 가진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자기 자신을 대하듯 이웃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입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생명을 살리는 정의입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이웃을 떠나게 만들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정의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기에, 늘 이웃을 향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십계명은 이웃 또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번 2025년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와,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닌 “우리의 행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 보낼수 있는 어린이가 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하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1	사도신경		다 같이	852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의 죽음	왕하 1:13-18
2	찬송가	찬 472장	다 같이		엘리아 승천과 엘리사 승계	왕하 2:1-14
3	대표기도		정현숙 권사		엘리사의 사역 시작	왕하 2:15-25
4	성경봉독	왕하 5:1~14	윤독	852	아합의 아들 요람(여호람) 등극	왕하 3:1~12
5	말씀인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4)	윤이		자식을 잃게 된 여인을 도움	왕하 4:1~7
6	합심기도		다 같이		자식 없는 여인을 도움	왕하 4:8-37
7	헌금기도	찬 288장	윤이		독성이 강한 우물을 고치심	왕하 4:38-44
8	주기도문		다 같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심	왕하 5:1~27

■ 들어가는 말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의 통치시기에 적대국가인 아람(시리아)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나아만은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나병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은 여주인에게 북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귀뜸을 해주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나아만은 왕의 서신과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기겁합니다. 아람 왕이 침략 구실을 찾고 있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고 치유를 받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만, 정작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는 소수의 작은 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지, 은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은 명예와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큰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통해 임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장관으로 과거에 아람을 구한 입지전적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에 비해 나아만 장군이 잡아 온 어린 소녀는 하찮기 이를 데 없고 이름도 알 수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나아만은 권력과 명예를 가졌지만 무력한 나병환자일 뿐이고, 소녀는 힘없는 전쟁 포로였지만 선지자의 능력을 알고 믿는 생명의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존재의 힘은 세상의 지위와 힘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겸손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고 낙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위엄과 지위가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을 통해 임합니다.

이방 땅으로 잡혀갔던 소녀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녀의 말을 들은 여주인은 소녀의 말을 신뢰하고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찾아가 알려줍니다. 나아만도 아내의 말에 소망을 갖고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엘리사의 능력이나 존재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기회를 오해하고 왜곡해서 아람 왕이 전쟁의 구실을 찾고 있다고 판단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아합 왕에게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말을 들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찾아가고 있습니다. 왕의 위엄과 권력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의 능력은 하나님께 대한 확산과 거기서 나오는 믿음에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많은 예물리 아니라 종 된 마음을 통해 임합니다.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거닐고 막대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습니다. 문둥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엘리사가 반응합니다. 맨발의 영접과 환대를 기대 했지만 엘리사는 다만 시종 게하시를 보내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나아만의 마음이 격동합니다. 우선 한 나라의 군대장관인 자신을 대면하는 엘리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치료하는 방법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자신에게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병이 나을 것을 기대했지만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자기 생각에 다메섹 강이나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크고 깨끗한 강에서 몸을 씻으려면 이해하겠는데 이스라엘의 실개천 같은 탁하고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이나 씻으라는 통보를 받으니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거래에 필요한 많은 예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치유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 지식에 합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써의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인정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체면이 아니라 옳되려 구하는 마음을 통해 임합니다.

자기 체면과 위신을 구김당한 나아만은 화를 내며 돌아섭니다. 아직도 체면을 버릴 만큼 낮아지지도, 도움을 구할 만큼의 간절하지도, 무릎을 꿇을 만큼의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종이 조심스럽게 순종할 것을 설득하자 마지못해 요단강에 몸을 담급니다. 엘리사를 통해 전달받은 말씀대로 일곱 번 몸을 담그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병이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더 낮아지고 더 버려야 합니다. 그 빈 마음에 은혜가 찾아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없고, 내려놓지 않고 은혜에 잠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임하게 됩니다.